영어어문교육 *제17권* 4호 2011년 겨울

무엇이 진실일까?: 영어공용화에 관한 연구*

장 선 미
(호서대학교)

Chang, Sunmee. (2011). The truth beneath: Officialization of English in Korea.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4), 357-373.

There have been great controversies over making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in Korea. They have been triggered since some scholars published books and articles claiming that officialization of English is the best option for Korean people who spend significant amount of their life time to learn English. Those who are happy about the idea believe that officialization of English will be a good help for Korean people to gain a high degree of English proficiency, while others worry about possible negative impact o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re are more diverse views and opinions on this issue. The distance between pros and cons about officialization of English doesn't seem to be negotiated.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not for finding the solution to the controversies. It is for understanding how those whose successful career and high living quality depend on gaining high command of English feel about acknowledging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of Korea.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ideas on the officialization of English of research subjects are similar with those of scholars in academia. Around two third of total number of the research subjects expressed their criticism against the idea. One interesting thing is that all of the subjects, regardless their positions, think that there are serious problems in English education policy and system in Korea.

[officailization of English/language imperialism/English education policy and system, 영어공용화/언어제국주의/영어교육정책과 제도]

I. 서론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호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2009-0051)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미국의 공식언어이며 그 나라 사람들의 모국어인 영어의 위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다. 영어를 못해서 당하는 수모와 손해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IMF로인한 미국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영어미숙으로 미국인변호사를 고용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다.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이나 연구소에서는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토익과 같은 공식 영어시험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승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만 한다는 것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이 되어 수많은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에 대한 이러한 사회현상은 유례없는 영어교육 강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현 정권보다도 훨씬 전 인 십 수년 전부터 과열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정권이 '세계화'를 제창하고 나오면서 '영어절대주의'는 한층 강화되었고 서서히 '영어공용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영어공용화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1998년 소설가 복거일이 <국제시대의 민족어> 라는 책에서 세계화 시대의 국제어인 영어를 우리의 모국어로 삼아 앞으로 이루어질 '지구제국'에서 중심부에 서자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촉발되었다. 그 이후부터 많은 학자들이 앞을 다투어 찬.반 의견들을 내놓았으며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는 첨예한 대립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다음 장에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소개될 것인데 그 주장들의 근거들은 그 타당성과 설득력에 있어서 꽤나 공감이 가지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서 더 이상 발전된 모습의 연구가 진행되어오지 못해왔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영어공용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어공용화론에 대한 논란들은 현실과는 좀 양상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영어공용화 논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또 그것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미약하나마, 학자들이 아닌 영어 때문에 삶의 질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당사자들이 영어공용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거기에 구체적인 개별적 의견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크게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샘플링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공용화에 대한 인식이나 의견의 관점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든 상이하든 모두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결과를 참고하여 실제로 영어공용화가 공허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선행연구

사실, 영어공용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이 저마다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영어공용화의 논란이 시작되었는지 그 논란들의 내용은 무엇들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998년 복거일이 '열린민족주의'를 제창하면서 영어공용화 화두를 던져주었다. 영어공용화가 후손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이유를 들고 나온 그의 주장은 참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영어공용화에 대한 찬반의견들이 계속 맞서고 있다. 영어공용화론은 일본에서도 대두된 바 있는데 그로 인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어학계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영어교육학계에서도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공용화론은 이를 둘러싼 몇 가지의 쟁점을 통해 정리 될 수 있다.

첫 번째, 세계주의와 민족주의(한학성, 2008)의 대립이다. 영어공용화를 둘러싼 찬반의견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영어는 국제경쟁력 향상과 세계화를 위한 조건으로 계속 난공불락의 국제어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지금 현재 영어는 수많은 분야에서 표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례로 현재 인터넷 싸이트의 90%이상이 영어로 되어있으며 또 전세계의 각종 회의들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만일 영어로 진행 하지 않고 통역사들을 일일이 고용하여 회의를 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현재 EU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해마다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한다 (정시호, 2000). 그리고 현재 전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생존하려면 영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매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 개념의 사회에서 잘 버텨내려면 세계주의를 표방하며 열린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공용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구의,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 하고 있다 (최원식, 1998).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등의 표현까지도 하고 있다. 즉, 영어공용화는 한국인의 민족문화와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잃어버릴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언어는 민족의 얼이며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그릇이고,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정서가 담겨있다고 하면서 노예로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주인 노릇 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한영우, 1998)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서 영어고용화 옹호론자들은 '닫힌 민족주의'를 '열린 민족주의'로 다듬어 내자는 것(복거일, 1998)이라 주장하였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

용하는 것이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불가피한 생존조건(정과리, 1998)이라고 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하여서도 말하기를, 영어를 공용화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는 것일 수는 있지만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인류로서의 정체성을 얻는 것(고종석, 2007)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영어공용화가 평등주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영어공용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영어의 공용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영어교육에 열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계층간에 불평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모두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영어공부 하는 기회가 보편적으로 주어져서 그러한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복거일, 2000; 고종석, 2007). 하지만 영어공용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어공용화가 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학성, 2008). 정시호(2000)는 영어공용화가 오히려 국민을 영어를 잘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양분하게 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 영어를 잘 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정리를 해보자면, 영어공용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 영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에 우리 국민이 영어사용에 익숙해질 것이고 따라서 조기유학이나, 영어교육을 위한 부수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또, 부유한 계급이 그렇지 못한 계급 위에 군림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주의에 부응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영어공용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어공용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영어습득은 일반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사용은 더 활발히 요구되므로 영어를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더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학성, 2008).

세 번째는 영어공용화는 한국어의 퇴보나 사멸을 초래할 거라는 견해이다. 영어가 공용화가 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면 삶에 유리한 편으로 사람들은 기울기 마련일 테고 점점 영어를 선호하게 되면 한국어는 뒤처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거일(1998)의 경우, 열린 자세로 현재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 중에 좋은 것은 골라서 우리 말의 일부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공용화 후에 우리의 후손들의 선택에 따라 한국어가 또는 영어가 모국어로 정해질 것인데, 영어가 모국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간과 함께 한국어가 소멸할 수도 있겠으나 영어라는 새로운 국제적인 모국어가 생기기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영어공용화 옹호론자인 고종석(2007)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는

데, 그에 따르면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미루어 볼 때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퇴보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적인 문서나 공식업무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겠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은 한국어로 유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영어공용화 반대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백경숙(2002)은 영어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국어로 선택될 거라는 복거일(1998)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세계적으로 한국어 사용 망이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한국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굳이 영어를 공용화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요즘 국제사회가 다중 언어사회로 바뀔 것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는 과연 영어를 모두가 잘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논란이다. 영어공용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훌륭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복거일, 2000). 영어를 제대로 번역하고 통역해내지 못함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등을 들면서 영어를 제대로 해야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어가 필요한 사람은 더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 반박의견들이 나왔다. 즉, 필요에 의해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한학성 2005).

박노자(2006)도 반박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언어는 이념, 종교, 대중문화 같은 정신적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시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어도 사용지역인 특정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상품적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영어권의 제반 영향이 많아짐에 따라 영어열풍이 일어난 것처럼 중국어권이 부각되면 중국어 열풍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서 굳이 특정 언어를 공용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백경숙(2002)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박노자(2006)도 한국어의 미래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애국심을 이용하여 영어를 배우는 것이 곧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오히려 언어는 한 나라의 국력신장과 비례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그리고, 영어공용화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느니 교육에 투자하여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편이 보탬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학성(2008)은 영어공용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 못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공용어로 지정하더라도 그것은 둘 중에 한 언어만 알아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올바른 공용화 개념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 영어공용화에 대한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정리 될 수 있겠으나 백경숙(2002)과 한학성(2008)의 정리방식을 참고하여 모아보았다. 일단 위의 정리된 영어공용화를 둘러싼 쟁점들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모두 나름대로 설득

력이 있어 보이나 실제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아닌 제한된 수의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므로 비약이라고 얘기해도 반박할 만한 근거를 딱히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여러 참고자료들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유추한 내용들이기에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러함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소모적 논쟁이 있어왔던 것이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확실한 증거에 토대를 둔 논리전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공용화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작은 시작의 의미로 영어를 늘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겪으며 살고 있는 '영어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느끼며 살아가는 일반인들' 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어공용화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공용화가 무엇이며 논란이 되는 이유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2)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이든 반대이든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 연구 배경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현장은 중부 지방에 있는 모 종합사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각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봉사함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며 특히 교원연수로 명성이 있는 학교이다. 특별히 이 대학의 영어영문학과는 현 정권이 시작될 무렵 이슈로 떠올랐던 TESOL(Teaching English to the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영어교육)의 필요를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체계적인 자체 TESOL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영어전문가들을 양성을 해 왔다. 영어교육, 언어 습득 등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학의 영어관련 학과의 학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TESOL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다른 대학들의 학생들 보다는 영어교육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훨씬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른 일반인들 보다는 '의식 있는' 영어교육 분야에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학생들의 연령대는 20대~40대이며 총 149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는 영어영문학 전공의 학부 3, 4학년 학생들이 74명, TESOL 자격증 수강생의 수가 63명, 그리고 대학원에서 영문학, 영어학, 그리고 영어교육을 세부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총 12명이었다. 성별은 분야 특성상 여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각각 여학생의 수는 121명, 남학생의 수는 28명이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인원구성

구분	내용
그룹별	학부생: 74명/ TESOL: 63명/ 대학원생: 12명 (총 149명)
연령대	학부생: 20대초반/ TESOL: 20대후반-30대/ 대학원생:20대후반-40대
남녀비율	여자: 121명/ 남자: 28명

연구대상 학생들은 모두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에 영어교육학 관련의 전공수업이나 자격증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었던 학생들이었고 그 수업과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강의를 하거나 주도를 하는 것 들이었다.

영어관련 학과나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들은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더 절실히 영어교육관련 논란에 대해 느끼고 자각하고 있고 영어로 인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기에, 그냥 겉핥기식이 아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영어공용화에 대한 이론적인 논리와는 차별된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어 희미하게만 보이던 것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며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 과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데이터 수집

연구자는 강의 진도에 따라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3시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나라 영어정책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언어제국주의 또는 언어정책의 정치적 성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그리고 영어공용화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도 덧붙여 소개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편견이나 선입관

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이 아닌 개괄적으로 영어공용화 논란에 대해 강의하였는데 연구자의 사적인 의견을 전혀 넣지 않고 학자들의 주장을 찬반의견 모두 고르게 골자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영어공용화에 대한 개괄적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 학생들이 얼마나 영어공용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간단한 설문지를 돌려 조사하였는데 몇 가지 문항과 약술형 문항을 포함한 설문지가 사용 되었다

수업은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학생들이 자유로운 토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진행해 나가려 하였으나 한 반에 학생 수가 많았던 학부 수업에서는 효과적인 자유토의가 용의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소그룹으로 나누어 적극적인 토의를 유도하였다. TESOL 자격증 반이나 대학원 수업에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과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영어공용화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영어공용화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에세이 형식으로 쓰게 하였다. 그 에세이는 특별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영어공용화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담도록 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쓰도록 하였는데 제한 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과제로 내주어 에세이를 완성하여 오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쓸 때 영어공용화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어느 쪽도 아닌 중립인지 본인의 논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도록 했으며 또, 그 논지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에세이의 양은 3장 미만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반복적 의견개진을 방지함으로서 데이터 분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된 날부터 일 주일 후에 에세이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다.

4. 데이터 분석

수집된 에세이는 면밀한 숙독을 통해 분석 되었으며, 영어공용화 인식에 대한 간단한 설문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간단한 양적 분석도 이용되었다. 물론 에세이 분석에서도 의견 별로 분류하는 데 필요에 따라 수치와 %를 사용하였다. 텍스트분석의 경우 학생들의 에세이를 모두 자세히 읽은 후 내용적으로 비슷한 의견 유형들을 묶어 편의대로 범주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크게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중립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범주아래에 공통된 세부의견들을 하위범주로 넣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본인이 주장한 논지의 근거들이 하위범주가 되었으며 그것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

되었다. 연구대상 학생들의 그룹에 따라 (e.g. 학부생, TESOL 수강생, 대학원생)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Ⅳ. 연구 결과 및 토론

1. 영어공용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먼저 학생들이 영어공용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고자 실시된 간단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공용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생각해 본적도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이해에 있어서도 약간 다른 양상이 보였다.

표 2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는가?

있다	없다
141명 (95%)	8명(5%) *모두 학부 여학생

표 3

영어공용화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국어와 영어 함께 사용	영어만 사용	공공문서에서만 사용
128명 (86%)	17명 (11%)	4명(3%)

재미있는 것은 영어공용화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의견이 비록 전체의 5%밖에 안 되는 8명이라는 적은 수 지만 이들은 모두 학부생들이었으며 특히 모두 여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전문적 식견이 충분치 않고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의 학생들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남학생들이 더 사회적 의식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영어공용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의견을 말한 학생들이 모두 학부여학생들이라는 것에 조금 눈길이 간다.

표 4

영어공용화에 대한 이해

영어공용화에 대한 이해의견 세부내용	명수 및 퍼센티지
1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우리나라 공식언어로 쓰는 것이다.	128/141명 (91%)
2 한국어 대신 영어를 우리나라 공식언어로 쓰는 것이다.	11/141명 (8%)
3 공공문서에서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2/141명 (1%)

영어공용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이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우리나라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소수의 의견만 한국어 대신 영어를 우리나라 공식언어로 쓰는 것이라고 대답하거나, 공공문서에서만 영어를 쓰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영어공용화의 정의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양상이라 할 수 있겠다.

2.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에세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크게 찬성, 중립, 반대의 3가지 종류의 의견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의견 분포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학생 전체, 그리고 세부 그룹별 분포도 더불어 정리하였다.

표 5

영어공용화에 대한 전체 의견 분포

	학부 여	학부 남	티솔 여	티솔 남	대학원 여	대학원 남	총계	백분율
찬성	13	2	9	3	2	0	29	19%
중립	2	0	5	1	4	1	13	9%
반대	47	10	35	10	4	1	107	72%
총계	62	12	49	14	10	2	149	100%

전체 데이터 대비 찬성의견은 약 19%, 중립의견은 9%, 그리고 반대의견은 72%로 압도적인 수 차이로 영어공용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자세한 세부의견은 아래와 같다. 전체 학생 수 (149명) 대비 각 그룹별(e.g. 학부. TESOL, 대학원) 퍼센티지의 산출은 각 그룹별로 인원을 균등히 배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어서 별 의미가 없기에 하지 않았고 각 그룹전체 학생 수 대비 찬성, 중립, 그리고 반대의견의 퍼센티지를 산출하였다.

1) 영어공용화에 찬성한다.

영어공용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29명이 표명하였는데 전체의 19%를 차지하였다. 찬성의견의 그룹별 분포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영어공용화 찬성 분포

찬성	학부	TESOL	대학원	총계
명수 /그룹전체	15/74 (20%)	12/63 (19%)	2/12 (17%)	29/149 (19%)

공용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표6과 같이 각 그룹별로도 정리될 수 있는데 학부생들의 20%인 15명, TESOL 수강생의 19%인 12명, 그리고 대학원생의 17%인 2명이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 각 그룹별 특별한 큰 편차는 보이지 않았고 전체 경향과 합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찬성의견들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의 글을 분석하였기에 칼로 베듯이 정확히 나눌 수 가 없어서 정확한 세부 의견 별 퍼센티지를 산출할 수는 없었으나 세부적으로 공통되는 의견들을 분류할 수 있었다[1]. 그 내용은 다음의 표7과 같다.

표 7

영어공용화 찬성 세부의견

	세부 의견
사회경제적 측면	1. 영어는 이미 세계공용어이므로 준비된 자세로 맞아들이자. 2.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문화적 측면	1. 영어공용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세계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언어적 장벽을 허문다면 우리의 문화가 타 문화의 유입으로 더 풍요롭게 될 것이다 3. 언어라는 것은 수단일 뿐이다. 영어공용화가 된다고 사라질 민족성 및 정신이라면 가질 가치도 없다.
교육적 측면	1. 국민들이 영어로 인해 겪는 고통을 줄일 것이며 사교육비의 절감과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 영어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영어교육방법이 필요하다. 3. 이미 공용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교실상황) 4. 영어로 인해 벌어지는 계층의 차이와 정보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5. 외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등 언어적 선택권이 주어진다. 6. 한자병용화를 한 것과 같이 영어도 병용화 할 수 있다.

찬성 의견을 표명한 29명의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위의 3가치 측면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에세이에 자기들의 방식으로 풀어놓았다. 세계공용어이기 때문에 공용화를 해야 한다는 대세론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적극적인 개방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서 세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민족의 고유성이 침해 받는다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의 성향도 보였다. 교육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의견들이 나왔는데, 영어공용화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 영어가 능숙하지 못함으로 인한 정보 손실 등을 줄일 수 있고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영어공용화를 현재의 비효율적인 영어교육정책의 대안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한자처럼 영어도 병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1] 찬성, 중립, 그리고 반대 의견 모두에 공통된 내용이다.

2) 영어공용화에 대해 중립이다.

영어공용화에 대해 중립이라고 분류된 학생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찬성과 반대의 중간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말 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양자택일을 못하는 학생들의 수는 총 13명으로 전체의 9% 정도를 차지하였다. 중립의견의 그룹별 분포는 아래의 표8과 같다.

표 8
영어공용화 중립 분포

중립	학부	TESOL	대학원	총계
명수 /그룹전체	2/74 (3%)	6/63 (10%)	5/12 (42%)	13/149 (9%)

그룹별 명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그 수의 42%가 중간입장을 취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학원생들 그룹의 의견은 자못 주목할 만 하다. 3개의 그룹들 중에서 가장 전공적인 식견이 있는 그룹이기에 영어공용화에 대해 다른 그룹의 학생들보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찬성의 경우나 반대의 경우나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기에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립을 표명하는 학부생들의 수가 적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보다 약간 연령대가 높은 학생들이 있는 TESOL학생들의 경우도 그 퍼센티지는 크지는 않지만 학부생들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았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표 9
영어공용화 중립 세부의견

중립	세부의견
찬성+반대	1. 글로벌시대에 발 맞추어야 하는 의미에서 영어공용화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언어정체성과 전통문화에 나쁜 영향이 갈까 걱정된다. 2. 영어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어 외화낭비가 없을 것이지만 과연 얼마나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모국어 수준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다. 3. 영어공용화는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과 자격있는 교사들의 확보 없이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표 9에 언급되었듯이 영어공용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시대라는 시류에 부응해야 할 것 같기도 하면서 거기에 따르다 보면 우리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영어 배우러 힘들이고 돈 들여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환영의 마음

과 함께 과연 국내에서도 같은 성과의 영어습득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의견들이라 할 수 있겠다. 근본적인 대책(효과 있는 교과과정, 자격 있는 교사확보)이 병행하지 않는다면 영어공용화가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3) 영어공용화에 반대한다.

영어공용화를 반대하는 학생 수는 총 107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다. 반대 의견의 그룹별 분포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영어공용화 반대 분포

반대	학부	TESOL	대학원	총계
명수 /그룹전체	57/74 (77%)	45/63 (71%)	5/12 (42%)	107/149 (72%)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영어공용화를 반대하였다. 학부생들과 TESOL 수강생들은 모두 70%이상의 높은 비율로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대학원생들도 거의 반수 정도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나머지 반 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음을 표10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영어공용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는지 다음의 표 11을 살펴보자.

영어공용화에 반대하는 세부의견들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되었다. 먼저, 영어를 과연 모든 사람이 배워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영어공용화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의견들과, 찬성의견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영어공용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별 도움이 안되고 도리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북한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과 또 우리 사회가 지식과 경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분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영어가 우리 말과 정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영어공용화가 서구세계의 문화적 식민지를 자처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는 약간은 국수주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해가 지지 않는 전성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 영어도 시간이 지나 세계 각국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관심을 끌었다.

영어공용화가 교육적인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찬성의견들과는 달리 오히려 해롭다는 의견들이 보이는데 특히 조기유학과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찬성의견과 정반대의 관점이라서 매우 흥미로웠다. 영어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과열되어있으니 더 부채질 할 필요

없고 그 보다는 현 영어교육정책을 바꾸어 보다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제시 의견도 보인다.

표 11
영어공용화 반대 세부의견

반대	세부의견
필요성측면	1. 모두가 다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다. 2. 영어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 배워야 한다. 3.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니 강요하지 마라. 4. 공용화에 쓸 돈을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자해라.
경제사회적 측면	1. 영어가 무조건 경제발전이나 선진화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job market을 잠식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들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3. 남북한간의 경제적 그리고 언어적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4. 두 언어로 인해 사회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e.g.부/지식의격차)
문화적측면	1. 우리 말과 우리 정신의 퇴보이다. 2. 우리 모국어가 영어로 바뀔 수 있다. 3. 우리 말을 위협하면서까지 영어를 공용화 할 필요가 없다. 4. 영어로는 우리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5. 선진국들의 문화제국주의가 심해질 것이다. 즉, 자발적인 식민지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 6. 영어가 현재는 국제어지만 국제어는 언제라도 다른 언어로 바뀔 수 있다.
교육적측면	1. 영어공용화 이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영어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 조기유학,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3. 영어에 대한 열풍은 이미 엄청나니 부채질 안 하는 게 좋다. 4. 입시위주 영어교육정책을 개선하면 된다. 5. 영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지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만한 일이 아니다.

4) 그 밖의 분석

각 그룹별 의견 분석은 위에서 찬성, 중립, 반대로 나누어 분석한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혹시나 남녀의 차이가 의견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지 궁금하여 분석하고자 각 그룹별로 성별에 따른 의견을 분류 해보았으나 남자가 수에 있어서 너무 적어서 그 분석결과가 연구에 별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남녀 수를 전체로 분석하였다.

위의 표5를 살펴보면 각 그룹별로 구분했을 경우 남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작아서 의미 있는 분석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전체적인 남녀비율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자 하였다.

표 12
성별 별 의견 분포

	여	남		백분율(여)	백분율(남)
찬성	24	5	29	20% (24/121)	18% (5/28)
중립	11	2	13	9% (11/121)	7% (2/28)
반대	86	21	107	71% (86/121)	75% (21/28)
총계	121	28	149	100%	100%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는 비록 같은 수의 남녀의 성향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흥미있는 결과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남녀간의 성향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10을 볼 때에 남녀 공히, 찬성의견이나 중립의견이나, 그리고 반대의견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영어공용화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남녀의 차이로 인해 이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연령대 별 분석은 학생들의 연령이 특정한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분포의 편차가 미미하여 연구결과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생략하였다.

V. 결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공용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한지 연구대상자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에세이를 통해 수렴하고 그 의견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한 영어공용화를 둘러싼 논란들이 과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존재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특이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보겠다.

첫 번째,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학자들은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비교적 비등하게 논지를 펴왔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견들이 더 많아 보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수에 있어서 월등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영어를 전공으로 하거나 관심분야로 삼고 있는 연구대상자들이 영어공용화가 되면 영어학습이 용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호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사실 영어공용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많은 수가 영어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그리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

두 번째, 영어공용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세부의견들은 개인적 이해(利害)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이해(利害)가 고려된 것들이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즈음의 젊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와 국가를 걱정하며 우리 문화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면서 반대 의견

을 개진하는 것은 아니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게다가 북한과의 벌어지게 될 격차, 통일 후의 북한과의 이질감이 심화될 것도 우려하였다. 영어공용화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영어가 궁극적으로 한국어를 밀어내고 모국어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공용화를 주장했으나 연구대상학생들은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비교적 극단적인 공용화로 이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하였다는 것은 어쨌든 인상적이다.

세 번째, 영어공용화에 찬성하는 의견이든 반대하는 의견이든 중립적인 의견이든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잘 못된 영어교육 제도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찬성하는 의견은 현재의 잘 못된 영어 사교육 열풍, 또 그로 인한 계층적 차이 등등이 영어공용화를 통하여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고 반대하는 의견은 영어공용화는 도리어 공용화된 영어를 빠르게 학습하게 하기 위한 사교육이 더 만연할 것이고 영어 열풍은 더 심해질것이라 예상하면서, 현재의 잘 못된 영어교육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영어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립적인 의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네 번째, 연구 결과로 나온 모든 의견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기존 학자들이 주장한 의견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연구대상 학생들로부터 얻기 전에 잠깐의 시간 동안 영어공용화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지만 개괄적이며 중립적으로 하였기에 학생들은 본인의 논리를 이루는데 특별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영어공용화에 대한 진솔한 자기 의견들을 표명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에서 그들의 의견이 기존 학자들의 주장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연구대상 학생들의 영어공용화에 대한 의견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중립이든,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견 간의 궁극적인 거리는 별로 좁혀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영어교육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영어공용화 논란 이전 단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는 영어교육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늘 차지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본 연구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아닌 영어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영어를 공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영어공용화 논란이 더 구체적으로 떠올랐을 때 미약하나마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하지만 본 연구 하나로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거나 최소한 비

슷한 형태의, 하지만 다른 부류의 보통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본 연구가 더 설득력 있고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더 많은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로써 본 연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REFERENCES

고종석 (2007). *감염된 언어*. 서울: 개마고원
박노자 (2006). *당신들의 대한민국 1*. 서울: 한겨레 출판
백경숙 (2002). 영어공용화론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소고. 사회언어학, 8(2), 469-495.
복거일 (1998). *국제시대의 민족어*. 서울: 문학과지성사
복거일 (2000, 3월). 소위 민족주의자들이여! 당신네 자식이 선택하게 하라. *신동아*, pp. 351-361.
정과리 (1998, 7월 14일). 영어, '내것화'가 관건이다. *조선일보*, 13면
정시호 (2000, 4월). 영어찬미자들에게 엄중 경고함. *신동아*, pp. 392-405.
최원식(1998, 7월 21일). 영어공용화론, 서구패권주의 연장. *조선일보*, 13면
한영우 (1998, 7월 10일). 지구제국은 강대국 희망사항이다. *조선일보*, 17면
한학성 (2005). *우리시대 영어담론, 그 위선의 고리들*. 서울: 태학사
한학성 (2008). *영어공용화, 과연 가능한가?*. 서울: 책세상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장선미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268
Tel: 041-560-8178
Email: schang@hoseo.edu

Received in October, 2011
Reviewed in November,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11